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7년 3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22(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3. 22. (수)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개발과
담당과장	정창현 과장 (044-203-4510) 김홍주 과장 (044-203-4520)	담 당 자	권주현 사무관(044-203-4512) 정상봉 사무관(044-203-4504) 장민재 사무관(044-203-4523)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분야 R&D투자로 시작된다!

- 산업부 장관, 12대 신산업분야 14개 기업연구소장 간담회 개최

- 14개 기업 '17년 신산업 R&D 투자계획: 전년대비 29.5% 대폭 확대

-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노력을 적극 지원

❶ 산업R&D중 핵심원천연구 비중 대폭 확대 : ('15) 28% → ('18) 40%

❷ 융복합 R&D지원 강화 : 사업구조 개편 및 융복합 R&D 종합기획단 발족

❸ 대규모 실증연구 지원 확대 : 연말까지 12대 신산업별 대표 프로젝트 발굴

□ 산업통상자원부는 3. 22.(수) 더 플라자호텔(오키드홀)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업 연구소장 간담회**"를 열었다.

- 일시/장소 : '17. 3. 22(수) 12:00~ / 더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
- 참석 : 산업부 장관, 12대 신산업 분야 R&D투자 주요기업 연구소장 14명, 출연연·지원기관 장 등 30여명

○ 오늘 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12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투자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 민간 기업 연구개발(R&D)의 최선봉인 기업연구소장으로부터 직접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의 혁신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 장관 주요 발언

□ **(연구개발(R&D)투자 중요성)**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경쟁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 선제적인 연구개발(R&D)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 **'13년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나, 오늘 회의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의 신산업 부문 연구개발 투자**는 **29.5% 증가**한 **3.5조 원**으로 고무적이다.

* 국내 1,000대 기업의 R&D투자 증가율(%): ('12)14.5→('13)10.5→('14)3.3→('15)2.2

□ **(그간 성과)**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신산업 창출**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 연구개발(R&D)·세제·인력 등 집중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등 3대 정책방향에 맞춰 적극 추진이다.

【 주요 추진성과 및 현황】

- **(규제개선) 네거티브 규제심사제 도입 → 255건**(총 271건 중 **94%**) 개선방안 확정
  - 향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 기술혁신 유도와 새로운 수요창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한 규제**(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적극 활용
- **(집중지원)** 신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 개편**,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84조원 투자**, **스마트공장 2,800개** 보급(☞ 구축공장의 생산성 30% 향상)
  - 금년까지 스마트공장 5,000개(누적) 보급 및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
- **(융합플랫폼 구축)** 에너지신산업 등 **9개 분야**에 **융합얼라이언스 발족**
  - **상반기 중** 융합얼라이언스 모델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

□ **(산업 연구개발(R&D) 정책방향)** **연구개발** 투자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연구개발(R&D)**을 혁신하고 있다.

❶ 글로벌 시장 선도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 위험이 커서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을 위해 **산업원천·선도형 연구개발(R&D) 대폭 확대**('15. 28% → '18. 40%)

- 반도체, 이차전지, 신소재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윗 단계

(Up-stream)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가전, 자동차, 공장 등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아랫 단계(Down-stream)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

❷ **이종 기술·기업·산업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형태(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도록 **융복합 연구개발(R&D)지원을 강화**

- **업종간 칸막이 제거** 및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산업부 연구개발(R&D)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 **「융·복합 연구개발(R&D) 종합 기획단」** 구성·발족('17.상반기)을 통해 **100억 이상의 대형 융복합 연구과제 20개** 이상 발굴

❸ **혁신형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대규모 테스트 베드형 실증연구 도입**

- 우선 **금년중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1,000억원 중점 투자**

- **하반기**에는 **스마트공장** 등으로 **실증 지원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12대 신산업 전반**에 **대표 실증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새롭게 제안**한 사업형태는 **우선 지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및 **기업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여, 노사는 물론 **사회 전반의 합의를 기초로 논의**해야 한다.

○ 아울러 **단계적 이행** 등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방안** 또한, **노동계는 물론 경제계 의견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한다.

주요 기업의 R&D투자계획

□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투자를 지속 확대**

○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기업들의 R&D 투자계획을 조사에 따르면, '17년도 연구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12.2조 원***

* 각 기업의 선도연구개발 투자 중심으로 조사된 금액으로 재무제표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 특히, 신산업 부문 R&D 투자는 **전년대비 29.5% 증가한 3.5조원**

< 참석기업의 신산업 분야 R&D 투자현황 및 계획(단위: 억원) >

'16년도(실적)		'17년도(계획)	
총 R&D투자	신산업 R&D	총 R&D투자	신산업 R&D
109,428	26,944	121,663	34,896

□ 기업들의 **주요 연구개발** 및 **신상품 출시 계획, 신산업 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 엘지(LG)**화학**은 3세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수처리 필터의 고염제거, 고투과 차세대 기술개발(신소재), 의약품 및 종자/작물보호에 대한 중장기 연구에 착수(바이오)

○ **한미약품**은 세계적인 협력사와 협력을 통해 신약의 국제 임상진행을 중점 추진하고, 골다공증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등 복합신약 출시 계획

○ **이노시뮬레이션**은 가상현실(VR) 체감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상현실 사용시 겪는 멀미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가상현실(VR) 모션플랫폼*을 개발하여 상용화할 계획

* 탑승자가 실제와 유사한 움직임(모션)을 제공해주는 장비로서 시각적인 정보와 몸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멀미 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

○ **아모레퍼시픽**은 용산 신사옥 건립('17.하반기)에 맞추어 유전자 진단 및 개인맞춤형 화장품 체험관을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18.2/4분기 예정)

< 주요기업의 신상품 출시 계획안 >

LG화학	• **3세대 전기차 배터리**(500km이상 주행 가능) 개발
삼성디스플레이	• **갤럭시8** 등에 활용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 **세계최고 수준의 10나노대 DRAM**, 3D72단 낸드플래시
한미약품	• **평택 바이오플랜트 제2공장 시설투자** • 글로벌 신약개발 및 복합신약 출시
KAI	•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수출형 개발사업**(공중급유 및 최첨단 디스플레이 장비 장착)
현대자동차	• **수소전용차 모델** 출시 • **아이오닉PHEV(한번 충전 900km주행)**
삼성전자	• **IoT 기반의 스마트가전과 연계하여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 실시
한화테크윈	• **한국최초 5kg급 협동로봇**(스마트팩토리 활용 제조공정로봇)
현대중공업	• **스마트선박 경제운항**(최적연비) **실시, 세계최초 LNG연료추진 대형상선** 출시
LS산전	• **ESS용 전력변환장치**(기존 상품대비 **사이즈 30%↓**, 성능은 세계최고수준)
아모레퍼시픽	• 용산 신사옥에 **유전자 진단** 및 **맞춤형 화장품**을 위한 **체험관 신설**
이노시뮬레이션	• 게임용, 공포체험 등 VR컨텐츠를 가미한 **VR체험기 개발**
쿠쿠전자	• **IoT 기술, 감성 컨텐츠를 접목**한 밥솥, 정수기 등 제품 개발
유콘시스템	•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고정익 드론**

제도개선 등 기타 논의내용

□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신산업 분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주형환 장관은 **과감한 정책추진과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고위험, 고난이도 미래연구개발과제** 또는 **개발된 연구성과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현금부담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추진) 하기로 했다.

○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 ('21년까지 480명 양성)

○ **중소 가전사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촉진**을 위해 **상반기 중** '사물인터넷(IoT) **가전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제공 및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에어가전 혁신센터**'('17~'21, 210억 원) 설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가전에 필요한 공통모듈을 개발하기로 했다.

○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년말까지 공용급속충전기 2,500기를 포함, 누적 2만기의 충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확산에 핵심역할을 할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년 예산 884억 원을 지원할 계획(전년대비 22.4% 확대)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붙임 자료]

1. 행사개요 // 2. 참석자 명단 // 3. 산업부 장관 인사말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권주현 사무관(044-203-4512), 산업기술개발과 장민재 사무관(044-203-4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사개요

□ 목적

○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민간의 R&D투자 격려 및 의욕 고취**

○ **산업 R&D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신산업 창출방안 보완·발전**

□ 개요

○ 일 시 : **'17.3.22(수), 12:00~13:40** (오찬 포함)

○ 장 소 : **더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

○ 참석자(안) : 정부, R&D투자 우수기업, 출연硏, 지원기관 등 20여명

- 산업부 : 산업부 장관, 산업정책실장, 산업기술정책관, 소재부품 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등

- 민간 : **12대 신산업 분야 R&D투자 주요기업 연구소장 14명**

- 기관 : **(출연연)**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 **(지원기관)** 전략기획단, KIAT, KEIT, 에너지기술평가원

□ 진행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2:00~12:05 (05')	개회 및 기념촬영	
12:05~12:10 (05')	인사 말씀	· 장관
12:10~12:25 (15')	(발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 R&D 정책방향	· 산업부
12:25~13:25 (60')	토 론	
13:25~13:35 (10')	애로사항에 대한 담당국장 답변	
13:35~13:40 (05')	마무리 말씀	· 장관

붙임 2 참석자 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비고
12대 신산업 대표 R&D투자 기업 (14)	LG화학	유 진 녕	연구소장	첨단신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김 성 철	연구소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홍 성 주	연구원장	차세대 반도체
	한미약품	김 선 진	R&D 본부장	바이오헬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장 성 섭	개발부문장	항공・드론
	현대자동차	박 동 일	전자기술센터장	전기・자율차
	삼성전자	황 성 우	Device&System 연구센터장	AR/VR, IoT 가전, 반도체 등
	한화테크윈	김 동 일	사업부장	로봇
	현대중공업	주 원 호	연구원장	스마트 친환경 선박
	LS산전	권 봉 현	연구개발본부장	에너지신산업
	아모레퍼시픽	육 심 욱	연구경영실장	프리미엄 소비재
	이노시뮬레이션	조 준 희	대표	AR/VR
	쿠쿠전자	배 수 호	연구소장	IoT 가전
	유콘시스템	이 윤 생	연구소장	항공・드론
출연 연구기관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상 훈	원장	
	생산기술연구원	이 성 일	원장	
	기계연구원	박 천 홍	원장	
R&D 지원기관 (4)	R&D 전략기획단	박 희 재	단장	
	산업기술진흥원	정 재 훈	원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 시 헌	원장	
	에너지기술평가원	황 진 택	원장	

붙임 3 | 산업부 장관 인사말씀

기업 연구소장 간담회 인사말씀

2017. 3. 22(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시는
12대 신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 연구소장님들과 함께
R&D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R&D 투자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AI, IoT, 로봇 등 파괴적 기술들이 현실화되면서
기존 경쟁의 룰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빠르고 과감한 R&D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이후
민간의 R&D 투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 국내 1,000대 기업의 R&D투자 증가율(%): ('12) 14.5 → ('13) 10.5 → ('14) 3.3 → ('15) 2.2

최근 심화되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R&D 투자가 더 위축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요 기업들이
금년도 R&D에 지난해보다 11.1% 증가한 12.2조원을,
신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29.5% 증가한 3.5조원을
투자하실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신산업 R&D투자에 주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희망을 봅니다.

2 그간의 성과

정부도 민간주도의 신산업 창출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R&D·세제·인력 등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
3가지 분야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감한 규제개선입니다.

지난해 「네거티브 규제 심사제」를 도입하여
신산업 분야 271개 규제 중 94%에 이르는 255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자동차 연비규제 등과 같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규제는 적극 도입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입니다.

신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R&D 세액공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84조원의 정책금융을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2,8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생산성을 30% 가까이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5,0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이업종간 협업을 촉진하는 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미 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등 9개 분야에
다양한 수요기업, 공급기업, 금융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표준화, 인프라, 공동R&D 등을 논의하는
융합얼라이언스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높이 평가받은
우리의 융합얼라이언스 모델을
상반기중에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발족 예정인 융합얼라이언스 분야 : 재활로봇(3.23), 전자부품(3.31), IoT가전(4월) 등

3 산업 R&D 정책방향

R&D 투자가 신산업 창출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개발모델을 벗어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R&D를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핵심원천기술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추격자*(Follower)*'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산업원천·선도형 R&D를
현재 산업 R&D 예산의 28%에서 '18년 40%까지 대폭 확대하여,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예컨대 선진국과 격차가 큰 AI의 경우,
장기적 시각에서 AI 원천기술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AI를 구동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신소재, 센서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업스트림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오픈소스 AI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가전, 자동차, 공장 등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다운스트림 분야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신산업을 조기에 창출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둘째, 이종 기술·기업·산업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창출되도록 융복합 R&D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 제조기업인 GE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변신 선언,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구글, 아마존의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으로의 진출 등은
더 이상 과거의 기술간, 산업간 경계가 무의미해졌음을 반증합니다.

업종별로 칸막이가 있는 기존 산업 R&D 체계로는
이러한 융복합화, 플랫폼화 트렌드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상반기중 전면적인 산업 R&D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100억 이상의 대형 융복합 연구과제를
20개 이상 발굴하여 기술간 융합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명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융·복합 R&D 종합 기획단(가칭)」을 발족하겠습니다.

셋째, 혁신형 제품과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대규모 테스트베드형 실증연구를 도입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선점은
R&D를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누가 더 빠르게 검증하여 시장에 내놓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제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제주도의 전기차 테스트베드를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좋은 사례로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1,000억원을 중점 투자하는 한편,
12대 신산업 전반에 걸쳐 대표 실증프로젝트를 발굴하겠습니다.

기 구축된 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제안되면,
우선적으로 실증연구를 지원하여
협업의 성공사례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쟁우위에 있는 핵심기술의 유출은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업 규모별, 업종별 기술유출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집중 관리해야 할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세부 보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 기업들의 입증책임 문제와 함께,
불법유출시 제재기준 강화, 신고자 포상제 활성화 등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4 미래 먹거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과 대내외 불확실성이라는 큰 파도에 맞서
우리 기업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경쟁에 놓여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反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기업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과
기업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노사는 물론 사회 전반의 합의를 기초로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계적 이행 등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방안 또한, 노동계는 물론 경제계 의견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맺음 말씀

참석자 여러분!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위대한 업적은 대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 *"Great deeds are usually wrought at great risks."*

우리는 그간 성공한 Fast-Follwer로서 만족했으나,
이제는 First-Mover로 나아가기 위해
그 어느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민간과 정부간
적절한 역할분담*(Public-Private Partnership)*이 중요합니다.

민간은 혁신기술에 과감히 투자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는 민간이 혁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R&D 분야에서
민간과 정부간 효율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하며,
정부도 힘껏 돕고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